

문화광장



김 준 기
미술평론가

소녀상 한 점이 동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다. 아이치트레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에 출품되었다가 나흘만에 전시장 폐쇄 조치를 당한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다.

소녀상은 애초부터 정치예술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내가 이 작품을 사회예술로 해석하는 글을 발표했을 때 디자인평론가 최범은 “이 작품은 사회적이기는 커녕 매우 정치적인 작품”이라고 논평했을 정도다. 이렇듯 정치예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소녀상이 드디어 제대로 정치적

동아시아를 뒤흔든 ‘평화의 소녀상’

공론장에서 요동치고 있다.

소녀상을 휴머니즘 차원의 인체조각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자리잡은 사회예술로, 나아가 국내 외의 이해관계 속에서 의미망을 확장하는 정치예술로 진화하게 만든 것은 인간성과 역사익에 둔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세력들이다.

‘평화의 소녀상’ 만큼이나 국민적 공감대와 미술전문가들의 비평 사이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작품도 보지 못했다. 형식주의 비평의 관점에서 볼 때, 소녀상은 꽤나 진부한 작품으로 평가받곤 한다. ‘구상여성인 체조각’의 전형적인 상투성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희생자 소녀’에 대한 공감을 촉구하는 신파적 서사라는 페미니즘 시각의 혹평이 따라붙곤 한다.

게다가 수십 점의 복제품으로 여

러 나라 도시에 자리잡으면서 마치 유관순 누나나 이승복 어린이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일종의 영웅적 서사마저 동반하고 있으니 세간의 식자 왈하는 이들이 마냥 근거없는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다.

미술비평가로서 나는 이러한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작품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미학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대중적인 언어로 우리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아픈 이야기를 풀어냈고, 그것을 둘러싼 다층적인 감상과 해석, 심지어 유용성의 측면에서까지도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있는 공론장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예술 그 자체로서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 이른바 순수예술의 관점을 훌쩍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작품으로서 사회적 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왔다.

소녀상은 한국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의미있는 상징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나아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맥락에서도 첨예한 상징으로 조명을 받았다.

최근에 이 작품이 겪고 있는 표현의 자유 탄압 문제는 이 작품의 정치성을 제대로 살려줬다. 일본 정부는 부안 그레도 들끓고 있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익자에 얽전히 앉아있는 소녀상 한 점이 이토록 심란하게 세상을 뒤흔드는 평화예술 공론장으로 작동해나간다.

이게 다 예술의 정치적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술탄압이라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아베와 그의 친구들 덕분 아닌가!

뉴스-in

서귀포 시민단체, 의료원 위탁 운영 동조

제주시, 국비확보 총력전

○…제주시가 2020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대중양 절충을 강화하고 있어 눈길.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과 실국 담당자들은 1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12일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반응을 당부.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5개 사업 200억여원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9월 2일 기재부에서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고 점언. 고대로그자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해야”

○…양운경 서귀포시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100일 회견에서 언급했던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추진과 관련, 서귀포시 시민단체들도 지원사격을 선언. 7개 단체는 12일 시청에서 기

자회견을 열어 제주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밝히며, 시민들은 그동안 열악한 의료환경을 견디며 아프지 않기만을 고대하며 살아왔다고 강조.

이들 단체는 “의사가 1명인 과는 의사들이 수술시 진료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응급환자는 골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 문미숙기자

도교육감 휴가 중 읽을 책 추천

○…이석문 제주시교육감이 12~14일 3일간의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휴가 때 읽을 만한 책으로 ‘IB를 말한다’와 ‘수축사회’를 추천. 이 교육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IB를 말한다’를 통해 그동안 낯설었던 IB가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한국어 IB를 통해 달라질 제주교육의 미래도 미리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이어 “‘수축사회’는 ‘성장’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와 교육을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 표성준기자

사설

지역특산품 외면, 민낯 드러낸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설립된 국가공기업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도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탄생한 겁니다.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JDC가 맞는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JDC가 제주 관광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특산품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공항 JDC면세점 앞에 ‘JDC면세점은 제주특산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이를 본 관광객이나 도민이 손소리를 쏘아냈습다. 제주여행을 왔던 김모(43·서울)씨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면 면세점도 운영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간판을 세워놓을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도민 조모(36)씨는 “제주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제주특산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간판이나 설치하는 JDC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JDC가 제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년 1000억원대의 수익을 챙기면서 정작 제주특산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홍보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JDC의 이런 황당한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되레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제주도산품 업계의 보호를 위한 측면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주를 위해 존립하는 JDC가 관광객들에게 대놓고 알렸다는 점에서 어설픈 JDC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JDC가 그동안 제주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도 많지만 도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제주도의회에서 JDC를 제주도로 환원하거나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겠습니까. 제주를 위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JDC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산성비 대책 마련 적극적으로 나서라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제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제주에 내리는 비는 대부분 산성비라고 합니다. 산성비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5.6 이하인 비를 얘기합니다.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의 질이 나빠지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산성비에 녹아내려 웅해된 알루미늄은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쳐 눈을 자극하고 피부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올해 제주에는 얼마나 강한 산성비가 내렸을까요?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비의 평균 산도(pH)를 보면 올해 7월 4.9, 6월 4.4, 5월 4.4, 4월 4.5, 3월 4.4, 2월 4.7이며 지난 1월에 4.1로 가장 강한 산성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2017년에도 10월과 4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pH 5.0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정함을 자랑하는

제주의 산성비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측장비는 2곳 뿐이고 이중 한 곳은 고장으로 8개월째 운영이 멈춰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산성비의 기준도 환경부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pH 5.6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pH 5.0 이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가 산성비에 대한 산성비가 내렸을까요?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비의 평균 산도(pH)를 보면 올해 7월 4.9, 6월 4.4, 5월 4.4, 4월 4.5, 3월 4.4, 2월 4.7이며 지난 1월에 4.1로 가장 강한 산성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2017년에도 10월과 4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pH 5.0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정함을 자랑하는

열린마당

‘스포츠 7330’으로 나의 건강을 지켜내자



양 치 우
제주시 체육진흥과

우리나라는 한해 10만여 명이 운동 부족으로 사망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어느 의학정보지에서는 우리나라 40대 돌연사율이 세계 최고라 통계내고 있으며 돌연사의 원인 중 절대 다수가 그릇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고, 운동만 제대로 하더라도 건강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조인도 함께하고 있다.

매일 30분간 즐겁게 몸을 움직이면 마약보다 더 강력한 ‘베타엔도르핀’이 나온다고 하며 규칙적인 운동은 체내의 노폐물 축적을 막고 신체기능을 향상시켜 성인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적당한 운동, 스포츠 활동은 사회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 생활체육은 일부만이 누리는 여가활동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향유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기도 하다. 세대·지역·계층간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남녀 구분 없이 조화를 이루는 의사소통 수단인 것이다.

스포츠가 생활화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아직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연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스포츠 7330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도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가능 보강으로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으로 ‘스포츠 7330(1주일에 3번, 30분 운동)’을 시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기반으로 구축하면 더욱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진기택 어머니 제주양씨 두영 (향년 87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10일 06시 4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리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13일(화)
▶발인일시: 2019년 8월 14일(수)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자: 남읍공동묘지

아들 진기택 맏노리 전순옥
기정 김정희
기방 김경희
진희선 사위 곽재호
민자 김태진
진영환 손녀 주
영삼 손녀 진
영재 손녀 진
영조 외손녀 김모경
외손자 김수환 외손녀 박미진
연진
김여선

※ 연락처 : 진기택 010-4690-3324
진기정 010-3691-4322
진기방 010-5008-2105
진희선 010-7676-3204
진민자 010-2689-0574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품
미국식품의약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화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람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그랜드보청기

여름시즌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참ชน들 혼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산악인 오회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회준은 해발라야 8,000m 10작을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회준님은 지금도 해발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회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8월 18일(일) 08:00
장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점 : 08시 토평동 오회준 추모공원 집결

·인 원:선착순 40명
·비 용:10,000원(교통비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회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산행코스:효령사→선돌계곡→한라산둘레길→백담계곡→효령사

산악인 오회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포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부 7인
1989년 8월 20일 내할 해발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시사팔마(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내할 해발라야 로체(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내할 해발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2정 44일간 세계최단기복 성공
2006년 5월 1일 9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내할 해발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가셔브롬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가셔브롬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내할 해발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배랑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훈장 맹호장수훈(체육훈장 맹호장 제51호)

사)산악인오회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 연락처: 사)산악인오회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6552)